국헌공 권칙權伋에 관한 실기자료【3】

權 五 焄
발행겸편집인

일본 통신사행에 종사관從事官으로 간 만랑漫浪 황호黃㦿와도 절친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호는 국헌공보다 5년 연하로서 선조 37년, 1604년생인데 약관에 문과를 하여 주서注書가 되었다가 인조 3년, 1625년 22세 때부터 여러 차례 직언을 하다 파직되기를 거듭하여 야인처럼 지냈다. 1636년에 33세로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발탁되어 일본에 다녀온 이듬해 1637년에 사헌부장령掌令으로 기용되었다. 1640년에 옥당에 선입되어 부수찬이 되고 교리校理가 되었다가 1645년에는 영남어사가 되기도 하고 사간司諫을 거쳐 1648년에는 대사성大司成에 이어 대사간이 되었다. 효종孝宗이 즉위한 1649년에 권신 김자점金自點과 연루되었다는 탄핵으로 1650년에 파출되었으나 미구에 대사성에 복직되고 사은사謝恩使 이시백李時白의 부사로 연경燕京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1656년에 52세로 별세했다. 이러한 황호는 남인南人 계열에 속했으며 그 문재가 당대의 신진중에서 발군의 명성을 떨쳤다. 그런만큼 당시의 문단에서 유명하던 국헌공과 서로 모를 이치가 없었을 것이다. 황호는 유고로 만랑집漫浪集을 남겼는데 거기에 국헌공의 시에 차운次韻한 오언고시五言古詩 5편, 오언율시律詩 1편, 칠언율시律詩 4편 등 10편의 시가 실려 있다. 국헌공의 원운原韻은 그 문집이 실전되어 찾아 알 길이 없다. 일본 통신사행 중에 창화한 것이 대부분인 그 시를 일일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차권칙사회운次權式寫懷韻 : 권칙이회포를그린시에차운함
방장염구유方丈厭舊遊 : 방장산도이제유람에물려
봉래입신상蓬萊入新賞 : 봉래산을새로이감상하러 드네
남아사방지男兒四方志 : 남아가 사방에뜻을두었으니
안능수유황安能守惟愰 : 어찌휘장만을지키고 있겠는가
종아자수자從我者誰子 : 나를좇는이어떤사람인가
권생소방탕權生素放宕 : 권생이 평소에탕방한데
행의승해부行矣乘海孚 : 길을나서바다의뗏배를타면서는
초연출세망超然出世網 : 초연희 세상사그물에서나와
경과고월성經過古月城 : 옛월성경주慶州를 지나면서는
방가성대상放歌星臺上 : 첨성대에올라노래를불러대니
일편읍신귀一篇泣神鬼 : 한편이귀신도울리며
천년조륜상千年弔淪喪 : 천년왕조가 망한 것을 조상하였네
변성구월추邊城九月秋 : 변방의성은가을9월이라
풍우파도장風雨波濤壯 : 비바람에파도가 굳센데
마도본외번馬島本外藩 : 대마도는본래국외의 울타리라
부산접린양釜山接隣壤 : 부산과이웃땅으로접해있도다
만추도아전蠻酋導我前 : 오랑캐 추장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여
괘석욕하향掛席欲何向 : 자리를 걸어 놓으니 또 어디를 향하는것인가
지지유소대遲遲有所待 : 지지하게기다리는바 있으나
초초무가황悄悄無佳況 : 근심속에좋은기미는나타나지않고
좌간세운만坐看歲云晩 : 앉아서 한해가 저물어가는 것 보노라니
엄류월기망淹留月幾望 : 체류하는 동안 날짜는 보름이 다되었네
성은상기미聖恩尙羈靡 : 임금의은혜에오히려 묶여 있는데
이정파앙앙夷情頗怏怏 : 오랑캐의 마음은 자못 원망스러워하네
민거근관시民居近關市 : 백성은관문의저자가까이에살고
수음간초창殊音間樵唱 : 어음이 달라 나무꾼의 노랫소리 같은데
고국일이원故國日以遠 : 고국은날로멀어지면서
중소몽천장中宵夢天仗 : 밤중의 꿈에서나 하늘에 떠올라보네
명발장절거明發杖節去 : 밝아서절모節旄에의지해 떠나면
왕령실림황王靈實臨貺 : 임금의영험이실로임하여주시겠지

대진차권칙운大津次權式韻 : 대진에서권칙의시운에차함
이역행차구異域行且久 : 이역의행로가또한오래인데
가처흥첩발佳處興輒發 : 아름다운 곳에서는 흥이 문득 발하네
근강비동정近江比洞庭 : 근강은중국의동정호와비교되고
대진통백월大津通百越 : 대진은백월과같다는데
호호장류원浩浩長流遠 : 너르고도기나긴 물멀리도 흐르고
묘묘양애활杳杳兩崖闊 : 아득하게도 양쪽 강언덕 떨어져 있네
능신출번도凌晨出番都 : 새벽을 무릅쓰고 이역의 도읍을 떠나
휴가영잔일休駕映殘日 : 해질녘에수레의 멍에를벗기니
전로향삼산前路向森山 : 앞길은울창한숲속을 향하네
한풍답상월寒風踏霜月 : 찬바람은서릿발달빛을밟는데
죽두굴장신竹兜屈長身 : 죽두가마에긴몸 굽혀 넣고서도
권생과방달權生誇放達 : 권생은활달함을자랑하네
고음설본건苦吟舌本乾 : 많이읊다보면혀가마르는법이라
감귤번채철柑橘煩采掇 : 감귤을빈번히채취하는데
아형하역역我形何役役 : 내모양이얼마나경박스러운지
아심상홀홀我心常忽忽 : 내마음이늘뒤숭숭하지만
왕사유엄정王事有嚴程 : 나랏일에는 엄격한 일정이 있는지라
민면감언잘黽勉敢言疾 : 힘쓰다 보니 감히 급한 소리도 지르네

비파호차권칙운琵琶湖次權伋韻 : 비파호에서 권칙의 시에 차운함
호수서주해湖水西走海 : 호수는서쪽에서바다로달리고
객자향동로客子向東路 : 나그네는동쪽의길로향하네
궁황이기후窮荒異氣候 : 머나먼세상끝이라기후가다르고
저안교벽수渚岸交碧樹 : 물가언덕에는 푸른나무 엇갈려 자라네
곤곤류부진袞袞流不盡 : 끊임없는흐름은다함이없고
행행일장모行行日將暮 : 가고또가도 날만이저물려하네
중호세굴곡重壕勢屈曲 : 겹쳐판해자는굽이굽이에둘렀고
장성하장고長城何壯固 : 긴성곽은 어찌도 그리 굳세고 견고한가
시간편범원時看片帆遠 : 때로멀리조각배가보이니
잉사어조취仍思漁釣趣 : 이내낚시질재미가생각나네
야묘반식다野畝半植茶 : 들밭에는차를심은게 절반이고
산전역종우山田亦種芋 : 산밭에는또한토란을심었는데
시전련백리市廛連百里 : 장터거리는연하여백리에뻗고
상고분치무商賈紛馳騖 : 장사치들 어지러이 치달리며 힘쓰네
왕왕문지명往往問地名 : 왕왕지명이무엇인지물으면
수음다천오殊音多舛誤 : 음이달라 많이 어그러지고 틀리는데
황내심하원況乃尋河源 : 하물며그물의근원을 물음에야
수능지장고誰能知掌故 : 누가이를고증할줄알리오

차권칙수리현운次權式愁里峴韻: 권칙의수리현시에차운함
호호섭중해浩浩涉重海 : 드넓고너른 바다 거듭해건너고
유유도만산悠悠度萬山 : 유유히수많은산을넘어도
촌심상자고寸心常自苦 : 마음속늘혼자괴로운데
고도하유반古道何由攀 : 옛길을 어찌하여 더위잡아 말미암는가
장유신웅부壯遊信雄富 : 웅장한 뜻으로 실로 성대하게 노닐음에
장회유굴반壯懷猶屈蟠 : 큰계획이 오히려 서리서리 맺히는가
포은유유촉圃隱有遺蜀 : 포은이옛적남긴발자취있는곳
추포조험간秋浦遭險艱 : 추포에서험한어려움을 만나네
패가여계반霸家與界濱 : 패권을쥐었던집물가와경계하여
아행과기간我行過其間 : 내가면서그사이로지났네
근강갱묘막近江更杳邈 : 근강은다시아득히멀고
준령부장만峻嶺俯長灣 : 높은산줄기는 긴 바닷구비 굽어보는데
궁동일이석窮冬日易夕 : 한겨울이라해는빨리져서
좌견서조환坐見棲鳥還 : 앉아서 새들이 집찾아 돌아가는 것보네
견여임경측肩輿任傾側 : 어깨가마옆으로기우뚱거리니
이로최간관泥路最間關 : 진흙길가장심한곳인가보다
관우재금차館宇在今次 : 이번에는관우에서 묵을 것이니
복부사투한僕夫思偸閑 : 인부들이 몰래 한가해볼 궁리대지만
엄정불가체嚴程不可滯 : 엄격한일정은지체가안되어
지척대위안咫尺對威顔 : 지척에서안전에대령하네

차권칙여전형운次權式與全滎韻: 권칙과전형의시에차운함
권생조탈영權生早脫穎 : 권생은일찍재기가드러났는데
기단기말견豈但其末見 : 어찌다만발탁되지를못할뿐이요
전생학초성全生學草聖 : 전생은초서에성인이되도록배워
휘쇄궁만변揮灑窮萬變 : 휘둘러 뿌리는 붓끝에서 만가지 변화가이는데
양생미상우兩生未相遇 : 두사람이서로만나지 못했다니
한도격영현漢都隔嶺縣 : 한양도읍이 준령으로 갈린 고을인가
종아부우해從我浮于海 : 나를좇아바다에떠서야
각망도로권却忘道路倦 : 찾아다니는 길 고달픔을 잊어버리는것인가
백록은대로白麓銀臺老 : 백록은승정원의원로이고
동명금규언東溟金閨彦 : 동명은관각의선비인데
정친등골육情親等骨肉 : 마음으로친한것이골육과같아
일석대안면日夕對顔面 : 아침저녁으로안면을서로대하네
아치백중간我齒伯仲間 : 내나이가엇비슷하고
아심우권권我心尤眷眷 : 내 마음은더욱은근하여마지않아
요령국공화要令國工畵 : 반드시 나라의 화공으로 하여금 그리게하면
타년별후견他年別後見 : 후일에헤어진 뒤에도볼 수있겠지

여기에서 전형全滎은 누구인지 모르나 글씨를 잘 써서 유학幼學으로서 통신사행에 발탁되어 능서관能書官의 직책으로 동행하게 된 사람이며 사절의 정사인 임광任絖과 부사 김세렴金世濂과도 평소 친교하기를 골육지친과 같이 하는 사이이다. 백록白麓은 정사 임광의 아호인 것이 확실한 듯하고 동명東溟은물론김세렴의호이다.

차권칙월성회고운봉정동명次權伋月城懷古韻奉呈東溟 : 권칙의 월성회시에 차운하여 동명께받들어올림
최대삼분국最大三分國 : 삼분된나라중가장크고
상승십백년相承十百年 : 서로이어천년을갔으며
우금장번부于今壯藩府 : 지금에 이르러서도 변방의 굳센 부가되어
유석성인연維昔盛人煙 : 옛스러이사람사는연기흥성하네
왕사빙수문往事憑誰問 : 지나간 일이야 누굴 믿어 물을 것인가
신시여세전新詩與世傳 : 새로이 짓는 시 세상과 더불어 전하라고
비음과서곽悲吟過西郭 : 슬피읊으며서쪽교외를지나자니
난작구원현難作九原賢 : 구천의현인들 부르기어렵네

차권칙월성회고운봉정동명次權伋月城懷古韻奉呈東溟 : 권칙의 월성회고시에 차운하여 동명께받들어드림
굴지천추칠백강屈指千秋七百强 : 천년을 손꼽아 7백년이 강성했는데
산하왕기이소망山河旺氣已消亡 : 산하의 왕성한 기운 이미 소멸해흩어졌네
처량월첩휴초백凄凉月堞虧初魄 : 처량타 월성의 처음 넋이 이지러짐이여
돌올성대의석양突兀星臺倚夕陽 : 우뚝 솟은 첨성대에 석양이비끼네
파식적성비구보波息笛聲非舊譜 : 만파식적 노랫소리 지금 도악보로 불리고
처용신무만신장處容神舞漫新粧 : 처용의 귀신춤은 새롭게 분장되어추이는데
계림황엽하수문鷄林黃葉何須問 : 계림의 누른 잎은 어찌 반드시묻고자하나
곡령청송역이황鵠嶺靑松亦已荒 : 송도의 푸른 솔 또한 이미황폐하였거늘

앞엣것은 동일한 제목의오언률五言律이고 뒤엣것은 칠언률七言律이다. 차운次韻은 대개 원운原韻의 시가 좋을 때 그 흥